

불기 2555년 동안거 입재식이 5월 17일 100여 조계종 선원을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2200여 수좌를 비롯한 전국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불퇴전의 용맹정진에 돌입했다. 하안거에 방부를 들인 수행남자들은 결제 하루 전날인 16일 저녁 결제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하고, 17일 결제 당일 사찰별로 방장스님 등 큰스님을 모시고 결제법어를 청한 후 3개월 간의 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은 동안거 결제 법어를 통해 수좌들을 격려했다. 한편 매년 하안거에는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2200여 명의 수좌들이 방부를 들어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일반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하안거 기간 동안에는 함께 정진하게 된다. 안거(安居)는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차년동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씩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전념하는 것으로, 출가수행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하고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법어 전문은 현대불교신문 인터넷사이트 현불뉴스(www.hyunbulnews.com)에 게재.

‘죽음을 각오하고 공구하면서 의심 해결하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법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인가
조산본적 선사에게 어떤 남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은 무엇입니까?” “사묘아두(死猫兒頭)입니다. 죽은 고양이 두개골이 다.” “무엇 때문에 죽은 고양이 두개골이 가장 비쌌습니까?”
이 화두에 등장하는 ‘사묘아두(死猫兒頭)’란 죽은 고양이를 두개골을 말합니다. 이것은 귀하다고 하거나 천하다고 하는 대립의식을 최대한 이용하여 그 해답을 찾게 하고자 하는 공부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래 가치가 없는 물건이지만 여기에 대하여 비싸다거나 싸다거나 하는 두 가지 길을 모조리 차단하여 다른 모든 분별의 근거를 빼앗을 목

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선지식들은 죄 없는 고양이 두개골을 유언하여 마른 우물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공부하는 남자들은 절체절명의 궁지로 몰아넣어야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바둥거리듯이 생사에서 벗어날 공부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조산본적(曹山本寂) 선사는 세상에 가장 비싼 물건을 ‘죽은 고양이 두개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묘아두(死猫兒頭) 공안은 죽은 고양이를 화두로 삼아 많은 공부인들로 하여금 의문을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더럽고 쓸모없는 흉물인데 어째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공구하면서 이 의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이 선방을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용맹심으로 구순(九旬) 하안거 동안 부지런히 화두를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졸객무졸주(卒客無卒主)하니 의가불의진(宜假不宜眞)이로다 갑자기 찾아 온 객을 잘 대접할 주인이 없으니 가짜를 내놓을 것이지 진짜를 보여줄 일은 아니로다.

‘칠흙의 암흑 속에 밝음의 씨앗이 자라고’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법어

칠흙의 암흑 속에 밝음의 씨앗이 자라고, 태양의 광명 속에 흑점의 어둠이 동한다. 어둠의 씨앗은 밝음을 찾아 움직이며, 밝음의 씨앗은 어둠을 향해 달려간다. 석가가 알기 전에도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니 우주 삼라만상의 인연법이 제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칠전선원을 중심으로 제방의 남자들은 빛의 요소를 찾아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여 진정한 참나를 찾으라.

진망분비구단물(眞妄本非求斷物)이며, 이법구공기유상(二法俱空豈有相)이리로다.

무상무공부불공(無相無空無不空)이니 즉시여래진아물(卽是如來眞我物)이로다.



진실과 망령이 본래 끊어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참과 번뇌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상이 있으리요. 상도 없고 공도 없으며 공하지 아니함도 없으니 이것이 곧 여래의 참나인 물건일세.

‘참사람 되는 길 소욕지족 부터’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법어

천지간(天地間)의 순환은 한치의 어긋나지 않고, 오늘도 엄정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님의 몸이요, 부처님세계를 낳날이 장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순환은 조그마한 사심(邪心)도 없이 제각각의 도리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직 사람들만이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어 자신을 망치고, 나아가 자연마저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모든 탐욕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참마음을 회복하여 참된 사람이 되어야만,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고 이 세계를 재앙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사람이 되어 부처님세계를 참되이 장엄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참사람이 되는 길은 가장한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소욕지족(小欲知足)할 줄 아는 데서 부터 비롯됩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실천행을 몸소 해나감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선지재기(參禪只在起疑團)
의거래사화단(疑去疑來似火團)
불각전신도방하(不覺全身都放下)
대천사계일호단(大千沙界一毫端)
참선은 다만 의단을 일으키는데 있으니 오직 의정으로 오고가 불덩이 같이 되어 잠깐사이에 전신을 통째로 내려놓으면 대천세계가 한 터럭 끝에 있도다.

‘자신 태워야 밝은 이치 드러나’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법어

법계중생과백년(法界衆生過百年)이나 차심무견몽중면(此心無見夢中眠)이라 아미타불하구원(阿彌陀佛何求遠)이로다 여아동명좌목변(與我同名坐目邊)이로다 법계의 중생들이 백년을 살아가건만 이 마음을 보지 못하고 꿈속을 헤매고 있네. 어찌 멀리서 아미타불을 찾으려하는가? 내 근본이름과 똑같은 이가 눈앞에 앉았었거늘.



중생의 어리석은 무명의 구름이 법계를 가려서, 지혜의 태양이 빛을 뿜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독은 바다가 되고 산이 되어 자신을 집어 삼켜버리는데, 누가 나서서 그 불길을 잡아 줄 수 있었습니까?
밖으로 내달린 만큼 되돌아서는 결단과 용맹심을 내어, 스스로 무명의 산을 밝히는 대법거(大法炬)가 되십시오. 그러면 옮기는 걸음마다 인연의 끈은 정화되고 이치는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궁고이경무량집(窮苦已經無量劫)이나 불신상경여의진(不信常擎如意珍)이라 부주구시무상모(不住舊時無相貌)하고 외구지식야비진(外求知識也非眞)이로다 곤궁한 고통을 무량집이나 지나왔건만 내 손에 여의보배 들고 있었음을 믿지 못하네. 옛 부터 지닌 무상의 근본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선지식을 찾는다면 참되다고 하지 못하리라.

‘공부 애써도 생각이 발라야’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법어

이번에는 불탄절(佛誕節) 연등불사가 끝나고 곧 여름 결제가 되니 우선 연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제법문을 할까 합니다.



고인의 계승에 개개면전명월백이요 인 인각하청풍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얼굴에는 해와 달이 밝게 비치고 발아래는 맑은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똑같이 자성광명을 발하고 있지만 업식에 가려져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인 것입니다. 연등법회는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자성광명을 찾아내서 부처님처럼 수용하자는 서원을 세우는 의식인데 요즘에 와서는 분원을 망각하고 사원경제를 충당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가는 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대혜어록(大慧語錄)에 당초장위모장단(當初將謂茅長短)더니 소요원래지불평(燒了元來地不平)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풀이 들쭉날쭉 났다고 해서 태워버리고 보니 땅이 본래 울퉁불퉁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애써서 해도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부에 의심이 나면 선지식을 찾아가서 의심을 풀고 가끔 조사어록을 살펴봐서 사건이나 편견에 빠지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야행(夜行)에 막담백(莫踏白)하라. 불수정시석(不水定是石)이 아니라, 밤에는 흰 것을 밟지 말라. 물에 빠지거나 돌부리에 채일까 합니다.

주장자를 세 번 구르고 하좌(下座)하다.

‘참선하는 하나만에 일심’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법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쉬어 고요하고 갈애를 소멸한 사람은 과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걱정하지 않고,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은 좋고 싫음을 떠났기에 성내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교만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과연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다생에 익혀온 습성을 정복하고 근본에 체달해야 물심이 일어난 도리를 자가용으로 쓰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만공 선사(滿空禪師)는 일심이 곧 만상이고 만상이 곧 일심이다 이것이 가깝지도 멀지도 아니하여 건곤과 더불어 같이 달이고 실렸으며 일월과 더불어 같이 비추어서 원융무애하고 자유자재하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심은 물과 심이 둘이 아닌 진여법계(眞如法界)의 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선일착최당연(參禪一着最當然)
이륙시중요기의(二六時中要起疑)
홀득통신한출(忽得通身寒汗出)
행행보보전전기(行行步步轉全機)

참선하는 하나만이 가장 좋은 거라네
행주좌와에 애써 의심을 일으켜라
홀연히 전신에서 식은땀이 흘러고 나면
하는 일마다 대기대응이라네

제 9회 대원상 (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의 현대적 재조명과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문 I (포교대상), 부문 II (콘텐츠대상)로 구분하여 제 9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부문 I (포교대상)

- **시상 부문 (개인 혹은 단체)**
 - 시상금 - 상금 총액 4,000만원 이내
 - 구 분 (1) 승가 부문 : 3인(곳) 이내, 상패와 상금 (2) 재가 부문 : 3인(곳) 이내, 상패와 상금
-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 승가부문 (개인 혹은 단체)
 - (1)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혹은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2) 단체 / 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 재가부문 (개인 혹은 단체)
 - (1)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2) 단체는 단체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접수기간 : 2011년 7월 1일(금) ~ 7월 29일(금)**

부문 II (콘텐츠대상)

- **시상 부문 (개인 혹은 단체)**
 - 시상금 - 상금 총액 5,000만원 이내
 - (1) 구분 (콘텐츠 부문)
 - ① 스토리텔링(TEXT 대본 등 제출), 다큐멘터리(DVD 혹은 TEXT 대본 등 제출), 드라마(DVD 혹은 TEXT 대본 등 제출), DOCUDRAMA(다큐+드라마, DVD 혹은 TEXT 대본 등 제출)
 - ② 영화(DVD 혹은 TEXT 대본 등 제출), 애니메이션(DVD 혹은 TEXT 대본 등 제출), INFORTAINMENT(정보+오락, DVD 혹은 TEXT 대본 등 제출)
 - ③ 작곡(곡악/양악/퓨전, DVD 혹은 TEXT 대본 등 제출), 연주, 공연(DVD 혹은 기타 자료 제출)
 - ④ 전시(도록, 사진 등 증거 자료 제출)
 - ⑤ 상기 관련 분야
 - (2) 본인 및 단체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공동제작·합작 등 관련기관·단체 또는 외부 지원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는 불가함).
 - (3) 응모자가 문화 콘텐츠 제작 또는 참여 경험을 증명 시 심사에 참고함.
- **접수기간 : 2011년 8월 1일(월) ~ 8월 31일(수)**

※ 부문 I 과 부문 II의 대상 수상자가 없을 경우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음.

※ 일정 자격수준 혹은 공적사항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 액수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제출서류 : 제9회 대원상 수상 후보 추천서(소정양식, 사진 부착) * 양식은 본 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 본 원 사무국,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 719-2606, 1855 *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자 소인 유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